

니다. 애굽이 300년간 동행하였다는 것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방향이 같았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동행자와 속도를 맞추어야 합니다. 속도를 맞추고, 발걸음을 맞추어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앞서가도, 나 혼자만 앞서가도 동행할 수 없습니다. 넷째,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한순간의 동행이 아니라, 한평생의 동행이었습니다. 한 두 번 순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번 2024년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 모두, 아름다운 만남과 동행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 도 인 도 자
찬 양 (430장, 559장, 620장 중 택1) 다 함 께
주 기 도 다 함 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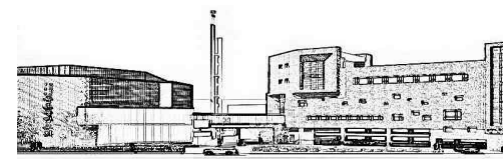
♡ 설 명절, 사랑하는 가족과 이런 시간 어떤가요?


- 함께 하지 못한 가족들과 (영상) 통화하기
- 서로에게 감사한 기억 나누고, 칭찬하기
- 비판하고 불평하는 말보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하기
- 식사준비, 설거지 등 가족이 함께 돕기
- “사랑해요” 라고 표현하고, 함께 손잡고 축복하며 기도하기

2 0 2 4

설 날 가정예배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출 15:26, 사 53:4~5, 살전 5:23)



 **대한예수교장로회
속초중앙교회**

2024년 설날 가정 예배

◎ 인도 / 가족대표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함 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550장, 301장, 304장 중에서 택1) 다 함 께
기 도 말 은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의 아침을 허락하시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2024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각 사람 위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한 가족들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히브리서 11장 5절 다 함 께

(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말 씀 나 눔 말 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시대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각자도생(各自圖生)이란 말이 있습니다. ‘각자 스스로 제 살길을 찾는다’는 뜻으로, 사회가 어려운 상황이 일때,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서로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동행(同行)이라는 말은 ‘같이 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동행하다’의 히브리어 ‘할라크’는 ‘산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창6:9), 아브라함(창17:1), 이삭과 야곱(창48:15)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에녹도 평생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입니다(창 5:24).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의 모습입니다.

첫째, 동행자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동행자와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방향이 다르면 동행할 수 없습